

자료제공 : 2023. 11. 8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

도시철도과장	김지형	2133-4331
도시철도총괄팀장	임국현	2133-4333
담 당 자	손동민	2133-4334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서울시, 서울교통공사(1~8호선)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

- 평시대비 지하철 출근시간대 100%, 퇴근시간대 87.2% 운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
- 시내버스·마을버스 등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, 증회 운행 등을 통해 시민 이동 지원
- 필수유지인력, 대체인력 등 1만3천명, 시 직원 일 124명 투입하여 지하철 지속 운영
-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

-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(1~8호선) 노동조합이 11.9.(목) 0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(서소문청사 1동 7층)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-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, 코레일, 버스 업계 및 자치구·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파업 상황별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한다.
-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(D~D+6일, 7일간), 2단계(D+7일 이후)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-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% 운영하고,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% 수준을 유지하며,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%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.
 -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2, 3, 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하여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미참여자·협력업체 직원 등 총 13,500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하고, 서울시 직원 역시 일일 124명이 역사근무 지원요원으로 배치되어 혼잡도 관리 및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.
-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시내버스 등 대체교통편을 마련한다.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(07~09시, 18~20시)을 1시간 연장(07~10시, 18~21시)하고, 단축차량 및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 투입하여 1,393회 증회 운영할 계획이다. 마을버스 250개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(07~09시, 18~20시)을 1시간 연장(07~10시, 18~21시)하고, 다람쥐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.
 - 지하철 파업시 대중교통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 다산콜센터 및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추진 및 시민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 “노사는 한발씩 양보하여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”고 밝혔다.